



현대 정치의 이해

2021년 2학기

공공인재학부

박 정 호



정치 철학

철학(philosophy)

- 철학이란?

- 철학은 세계와 인간에 대한 가장 근본적 문제들을 이성적으로 탐구하는 학문
- 일상적 삶에서 당연하고 자명한 것으로 믿고 있는 전제들을 비판적으로 검토
- 우리의 삶에 대한 근본적 반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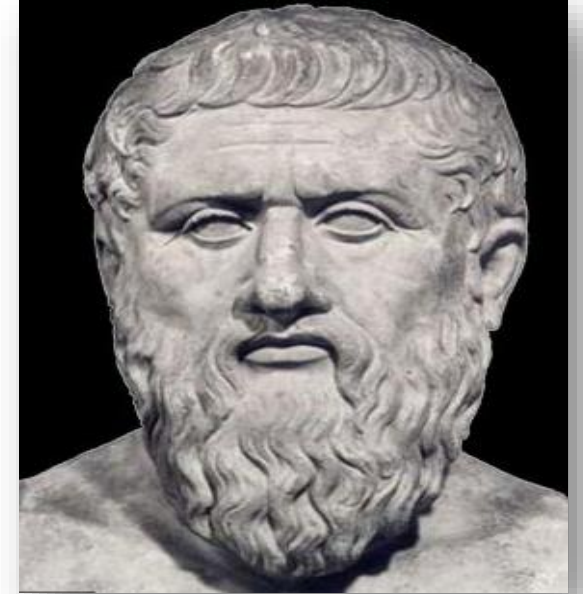
- 정치철학

- 정치에 대한 철학: 정치체제에 대한 탐구
- 근본적인 반성: 통치는 왜 존재하는가? 어떠한 통치가 바람직한 방법이며, 중요한 요인은 무엇인가?

정치 철학

고전 정치철학

- 플라톤(Plato, BC 427~346)
 - 철학에 대한 정의
 - 이상적인 공동체는 자유롭고 평등한 시민들의 자치(self-rule)
 - 공화주의적 이상
 - 시민의 덕성
 - 절제, 오만이 확산되는 사회에 대한 경계 ↔ 지혜, 덕성, 윤리
 - 훌륭한 정치인 정의, 절제, 덕을 함양시키는 교육자
 - “훌륭한 정치가는 동료 시민들의 영혼 속에 정의와 절제의 덕을 심어주고 함양시키는 교육자”
 - “철학자가 통치자이고, 통치자가 철학자인 국가는 행복하다” ➔ 철학자가 정치를...
↔ 대중 영합적인 정치에 대한 경계
(현실정치의 타락가능성: 정치권력, 사익, 물질적 욕구)





정치 철학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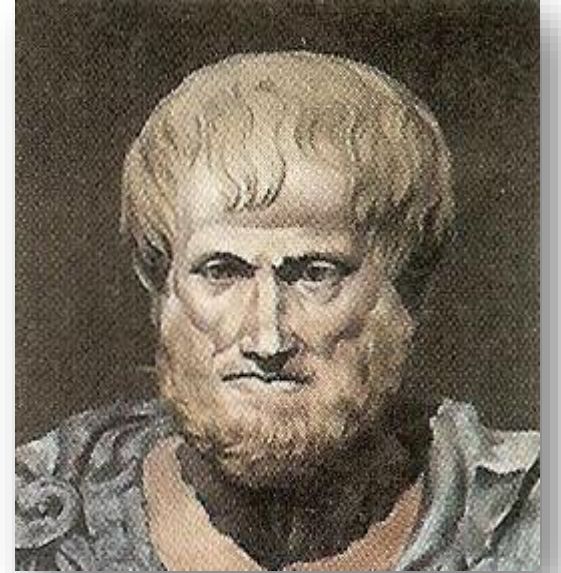
고전 정치철학

- 플라톤(Plato, BC 427~346)
 - 동굴의 비유(우상의 추구)과 이데아(본질의 추구, 불변한 영원한것)
 - 겉모습, 현실적인 것을 진실로 추구하는 것을 경계
 - 예시: 의자, 책상, TV의 개념이 갖는 이데아
 - 사회적 선, 덕성, 절제, 윤리, 도덕 등의 이데아 추구

정치 철학

고전 정치철학

- 아리스토텔레스(Aristotle, BC 384~322)
 - 자유와 통치를 불가분의 관계
 - ‘자유롭게 된다는 것’은 독립된 개인이 아닌 정치공동체 내의 ‘공적 활동에 참여하는 시민’이 됨
 - 공화주의의 전통
 - 지혜와 합의의 중요성, 현실적인
 - 일반적 규율 및 법규범에 의한 공화주의
 - 공화국은 덕과 능력에 의거하여 관직이 배분되고, 시민들이 그들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자유롭게 보장되는 정치 공동체
 - 법규범의 습관화와 법치 주의(덕치-인치보다 하위)



정치 철학

중세 정치철학

- 아우구스티누스(Augustine, 354~430)

- 기독교와 정치

- 인간의 진정한 행복은 이성이 아닌 신앙을 통해
- 통치: 신국과 지상국가의 '시민권': 신을 사랑하는가? 자신을 사랑하는가?
- 인간의 근본적 취약성 → 인위적 제도(사유재산 보호, 지배자-피지배자: 원죄의 결과)
→ 국가의 탄생(국가 권력은 필요악)
- 국가는 형벌과 치료에 의해 규정, 국가의 역할은 소극적
- 국가는 범죄자를 징계하고, 악을 제지하는 것
- 국가는 행복을 담보할 수 없으며, 인위적 영광보다는 신의 은총에서 행복을 추구하고, 사회의 결속력 가능





정치 철학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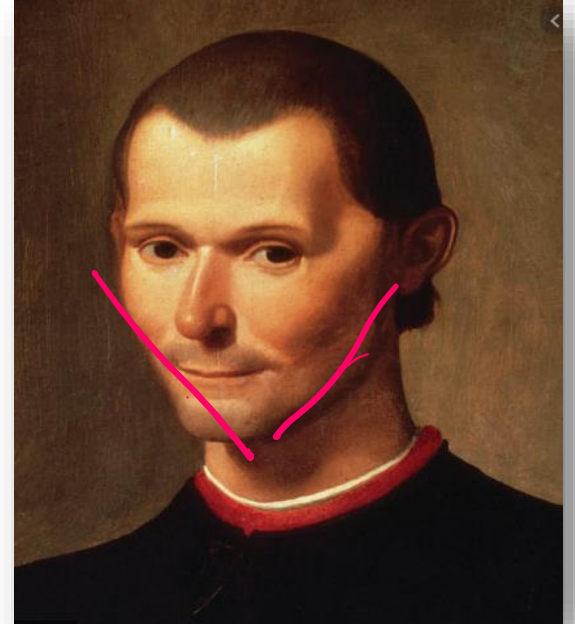
근대 정치철학

- 환경의 변화
 - 위계적 신분제도 11세기~14세기, 민족국가의 형성
 - 가족과 영주, 교회에 대한 충성과 신념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정치/통치 필요
 - 상업의 발달과 도시의 발전, 르네상스 인문주의—‘자유로운 개인’, 인간중심적 사고
 - 정치적 공동체는 인간의 의지로 구성, 정치적 권위 및 주권의 탈신화화, 정치적 투쟁
 - 산업혁명(자본주의)과 시민혁명(권력의 기초, 법률, 계약 등)
 - 자본주의, 사회주의 등 이데올로기의 등장과 갈등 등의 급격한 변화

정치 철학

근대 정치철학

- 마키아벨리 (Machiavelli, 1469-1527)
 - 영국과 미국은 이미 국민국가를 형성, 이탈리아는 아직도...
 - 이탈리아에 지속되는 혼란, 도시간 전쟁, 용병이 주역
 - **정치적 유용성: '역사적 실효성' vs. 이상적·상상적 국가**
 - 역사적 경험만이 현실에 유용한 지침을 줄 수 있다는 정치학적 대전제 주장
 - 전통적인 덕에 대한 이해와 사뭇 다른 의미
 - 혼돈 속에서 질서를 창조하는 능력, 질서는 시민의 행복을 보장
 - 모든 정치체제는 결함을 가지며 불안정함, 군주의 필요성



정치 철학

근대 정치철학

- 마키아벨리 『군주론』 발췌

- 군주가 좋다고 생각되는 성품들을 모두 갖추고 있다면 그야말로 가장 찬양받을 만하며, 모든 사람들이 이를 인정할 것은 나는 알고 있다. 그러나 **이 모든 것을 갖추는 것이 가능하지 않고, 상황이란 것이 전적으로 유덕한 삶을 영위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기 때문에**, 신중한 사람이라면 자신의 권력기반을 파괴할 법한 악덕으로 악명을 떨치는 것을 피하고, 또 정치적으로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 악덕들도 가급적 피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. 그러나 **만약 그렇게 할 수 없다면 후자의 악덕은 별다른 불안을 느끼지 않고 즐겨도 좋을 것이다.** 그러나 그것 없이는 **자신의 권력을 보존하기 어려운 악덕으로 악명을 떨치는 것에 관해서는 개의치 말아야 할 것이다.** 왜냐하면 모든 것을 신중하게 고려할 때, **얼핏 유덕한 것으로 보이는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자신의 파멸을 초래하는 반면, 일견 악덕으로 보이는 다른 일을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강화시키고 번영을 가져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**이다.



정치 철학

근대 정치철학

- 마키아벨리(Machiavelli, 1469-1527)
 - 정치현실에서의 힘의 의미, 강한 민족국가 수립
 - 정치세계에 '유효한' 진리와 통찰력
 - 정치적 혼돈과 무정부 상태에 가까운 정치상황
 - ➔ 권력과 힘에 기반한 군주의 근거



현대정치이해

2020년 1학기

공공인재학부

박정호

정치 철학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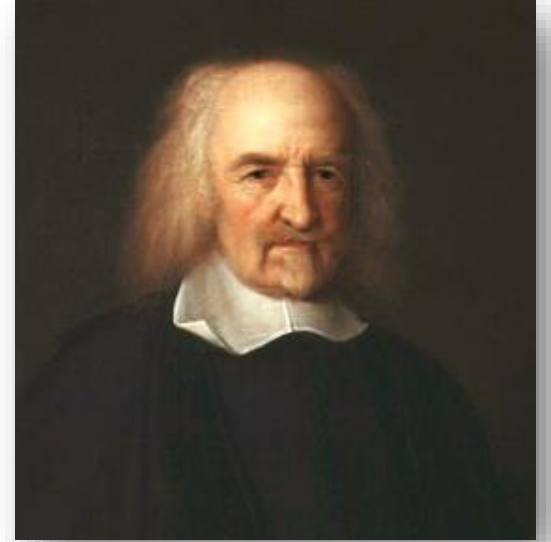
근대 정치철학

통치와 정치는 어떻게 생성?

• 사회계약론: 홉스

홉스의 접근법과 전제

- 환원주의와 사회계약론: 개인 전체의 합 = 사회 → 개인을 알면..
- 인간은 자기보전과 행복을 극대화하려는 이기적인 동기
- 인간의 본성은 사회성을 결여한 고립적 존재
- '만인대 만인의 투쟁', 외롭고, 비참하고, 죽음의 공포...
- 그래도 인간은 이성과 언어가 있어... 합리적 계산으로 자연권의 포기
- 제3자의 주권자에게 자연권을 자발적으로 양도할 것 합의(계약)
- 자연상태 → 절대군주 → 정당성(자발적) → 정치적 복종





정치 철학

근대 정치철학

- 사회계약론: 홉스

- 어떻게 하면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력의 주권자 창출가능?
- 정치의 목적은 최고선의 실현이 아닌 최대악 으로부터 탈피
- 강제력을 수반한 권력 ➔ 사회의 질서유지 ➔ 자유로운 개인
- 주권자 창출 후 시민은 정치로부터 해방, 자유로운 시장활동

정치 철학

근대 정치철학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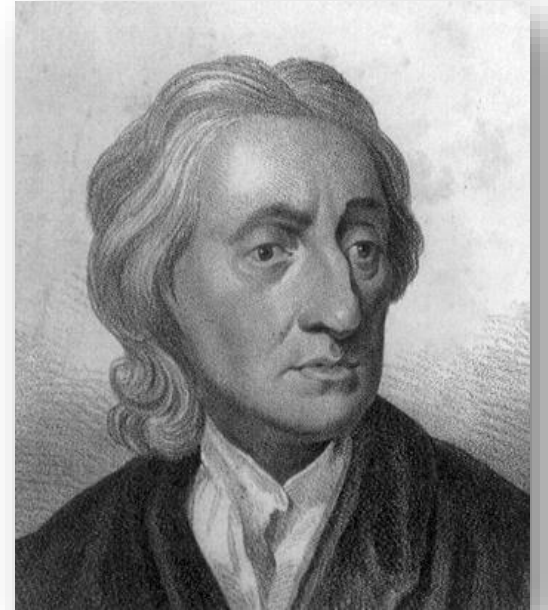
통치와 정치는 어떻게 생성?

로크의 접근법과 전제

• 사회계약론: 로크

- 환원주의와 사회계약론: 개인 전체의 합 = 사회 → 개인을 알면..
- 고립된 개인, but 인간은 어느 정도 사회성을 갖고 있는 존재
- 자연법에 의해 지배되는 평화로운 상태, 개인활동과 사적소유권
- 소유권, 생명, 자유 등에 대한 권리를 확실하게 보장 받기 위해
- 사회계약에 대한 동의와 다수결 원칙
- 정치사회의 형성과 정부의 구성은 별개: 신탁(fiduciary power)
 - 정부가 주어진 기능과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면

정부를 다시 구성할 수 있음



정치 철학

근대 정치철학

- 사회계약론: 로크

- 신탁 → 시민들의 저항권을 인정 → 정치권력을 제약 가능
- 정부를 불신임하는 것은 원래 계약에 의도와 정신을 재확인
- 권력의 자의적 행사를 막기위한 안전장치: 입법권과 집행권 분리
- 입법부(사회구성원들의 의사를 대변)의 우위를 강조

- 무질서 해결을 위한 접근(통치와 정치)

- 무질서와 혼란 → 강력한 권력(덕이 중요) → 자의적 권력
→ 최소정부론(자유가 중요)

정치 철학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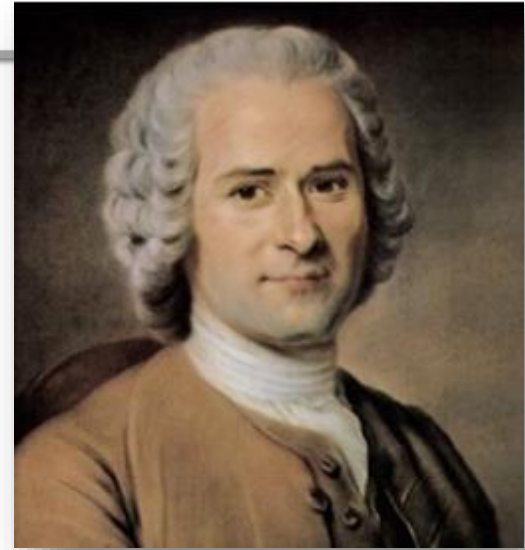
근대 정치철학

통치와 정치는 어떻게 생성?

↓ 루소의 접근법과 전제

- 민주적 공화주의: 루소

- 인간이 고립된 존재인가?! 공동체적 의미의 '시민' 이 존재
- 인간은 여전히 자기보존의 본능, but 자유로운 선택과 자기완성을 추구
- 자기완성: 인간은 변화와 적응과정을 경험하는 역사적 존재
- '개인'과 '시민'은 서로 다른 개념
 - 개인은 자신의 이익(사익)의 추구, 이익을 위해 계약으로 사회를 이루는 주체
 - 원자적 개인(환원주의)로 이기주의를 과학적 원리로 지지함 → 루소는 비판
- 사적이익을 추구하는 사회체제 → 불평등한 체제로 점점 변화



정치 철학

근대 정치철학

- 민주적 공화주의: 루소

- 사유재산의 보호 → 자연상태의 능력과 자질의 불평등 → 경제적인 불평등
→ 빈부의 격차와 계급 갈등 → 시민사회 붕괴 → 국가는 엘리트 계층을 대변
→ 경제적 불평등에 이은 정치적 불평등 → 복종↑, 자유↓, 참여↓ → 인간 소외 발생
- 소외와 불평등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: 정치적 대안을 모색
 - 시민이 자기 입법(self-legislation): 일반의지를 가진 시민이 제정하는 법 → 민주주의 기본
 - 루소는 “시민들이 **면대면 접촉을 통해서 동료애를 느낄 수 있는 작은 규모의 국가, 주권자와 국민의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국가, 법이라는 명예로운 속박 속에서 살 수 있는 국가, 새롭게 세워진 국가가 아니라 그 기원이 오래된 국가**”를 자신이 살고 싶어 하는 이상국가로 묘사



정치 철학

근대 정치철학

- 민주적 공화주의: 루소
 - 소외와 불평등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: 정치적 대안을 모색(계속)
 - 모두가 참여하는 의사형성과정
 - 공공선에 대한 인식, 공공정신이 자발적 형성
 - 일반의지의 예: 경제적 형평성, 공동체 내부의 동질성 등
 - 추가적 관심: 시민 교육을 통한 덕성 함양, 입법가의 자질 등
 - 현대적 의미의 민주적 공화주의의 이론적 기초 제시